공주대학교 동창회보
http://kongju.org

KNU
Alumni News

2007년 4월호(통권61호)

Kongju National University

국립 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KNU
Alumni News

• 발행일 : 2007. 04. 2
• 발행인 : 오재직
• 편집인 : 홍춘표
• 발행처 : 공주대학교총동창회
• 전 화 : 041-850-8762 · 041-850-2159
• 팩 스 : 041-856-7724
• 홈페이지 : http://kongju.org
• 인 쇄 : 공주중앙인쇄사 041-855-5858

Contents

동문시단

반백년(半百年) 넘어 찾아온 모교(母校) - 仁泉 李容九 동문 03

동창회관 마련 특집

동창회관 드디어 탄생하다. 04
동창회관이 마련되기까지의 경과 05
동창회관 마련에 따른 인사말 06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07
사진으로 본 동창회관 마련 과정 08
동창회관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09
아! 드디어 동창회관이 10

교명변경 반대 활동

쉬임없는 교명변경 반대 활동 11
국립공주대학교 교명변경 반대 성명서 12
모교 원로교좌단 교명변경 반대성명 김재현 총장 항의방문도 13
총동창회 고문단, 대학본부 측과 회동 교명변경 불가 사유 강력 전달 13
교명변경 반대 이사회 비상총회 17
모교 주최 교명변경 공청회 시민 반발로 무산 17
대학 측 7개 교명후보 발표 17
총동창회와 범공주대책위 교명변경 반대 공조키로 18
김재현 총장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19
교명변경관련 김재현 총장께 드리는 글 21
총동창회 교명변경 반대활동 일지 23

동창회소식

25회 동문 졸업 30주년 모교방문 25
광주 · 전남지부 총회 개최 25
보령지구 최고지도자과정 연합체육대회 26
동문 45명 교장자격연수 받아 26
논산지부 총회 개최 27
부여지부 총회 개최 27
대전지부 임시이사회 열려 27
2월말 정년 · 명예퇴직 동문에 동창회장 감사장 28
신입생에 동창회장학금 전달 28
평교사에서 일반고 교장 첫 기록 정읍고 소찬영(27, 독어) 동문 29
한병희(18, 화학) 동문 수필 신인문학상 수상 29
수학교육과 제11회 후배사랑 도서 전달식 31
김승동 고문 제5대 동창회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31

모교소식

부속고 손명균 군 KBS 골든벨 울려 32
언어교육원 한국어연수생 입학식 개최 32
개교 58주년 기념행사 32
모교 교원 임용고사 6년 연속 최다 합격 33
여군장교 전국 최다 선발 33
1급 시각장애인 국내 최초 교원임용고사 합격 34
전기 학위수여식 거행 박사 18명 등 2,780명 배출 34

인사이동

3월 1일자 교장 · 교감급 동문 인사 35

이사회비 납부자명단

동창회관 건립기금 기탁자 명단

반백년(半百年) 넘어 찾아온 모교(母校)

仁泉 李容九 (6, 국어)

아련한 기억(記憶)속에
사도(師道)의 꿈을 불러 옛날을 되새겨 봅니다.

1955년 3월 15일
마지막으로 떠나온 우리들 모교(母校)

"나라의 보람되고 겨레의 스승 되려
나아가는 길 영광(榮光)있으라 공주사대(公州師大)"

봉황산(鳳凰山) 기슭아래 메아리쳤던 교가(校歌)
가슴깊이 간직하고 기약 없이 헤어진 지
어느덧 반백년 세월!

전선(戰線)에서, 그리고 교단(敎壇)에서
나름대로 불살라 열심히 살았는데

너나없이 할아범 할멈 되어
이젠 가야할 길 멀지 않았기에

못내 허전하고 아쉬움에 겨워
다시 한 번 옛 품에 안겨 보고파

동창회(同窓會)모임 통보(通報)를 받고
황혼(黃昏)의 마루턱에 다다라
하얗게 늙은 오늘에야 찾아 왔습니다.

예런 듯 반겨주는 우리들의 배움터
모처럼 잡아보는 선후배(先後輩)의 손길
진정 눈물겹도록 따뜻하구려!

숨 가쁜 칠순(七旬)의 언덕을 넘어
팔순(八旬)을 향한 내리막길에

오늘 이렇게 만남의 기쁨을 안고
가슴앓이 수다를 떨면서

무한(無限)한 모교의 발전과
멋들어진 모두의 여생(餘生)을 술잔에 담아
우리 다 함께 건배(乾杯)합시다.

동창회관 드디어 탄생하다

동창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마련이 이루어졌다. 총동창회는 지난 2003년 정기총회에서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한 후 4년여 동안 기금 모금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결과 3,600여 동문들의 참여로 7억 3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았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는 회관을 건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무추진위원회와 고문단회의를 통하여 적당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어 지난 1월말 공주시 금성동 공산성 입구 연문광장 근처 대로변에 있는 4층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

매입 대금은 건물 가격 8억 2천만원, 취득세 및 등기비용 3천여만 원 등 총 8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다. 새로 매입한 회관 건물은 2004년 10월에 신축한 4층 건물로 대지 86평, 총건평 199평이다.

총동창회에서는 고문단회의와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3층을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부족한 금액 약 1억 2천만원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약정하고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들에게 납부안내장을 보내고, 미처 동참하지 못하신 동문들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함으로써 모금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동창회관이 마련되기까지의 경과

· 2003. 4. 27	공주대학교총동창회 정기이사회에서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춘우 전 동창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
· 2003. 5. 25	공주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동창회관건립사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결의함
· 2003. 6. 30~2004. 7. 18	전국지부 순방(24개 지부)
· 2003. 8. 4~2004. 8. 14	각 부설과정동창회 순방
· 2003. 8. 12	동창회관건립실무추진위원회 구성
· 2003. 8. 20	동창회관건립실무추진위원회 1차 회의
· 2003. 8. 20~9. 15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 위촉(전국 1009명)
· 2003. 8. 25~9. 19	실무팀장 회의(총 12회 개최)
· 2003. 9. 20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회 (결의사항 : 이후 모든 결정은 동창회관건립추진실무 추진위원회 및 고문단에게 위임하기로 함)
· 2004. 11. 10	동창회관건립실무추진위원회 및 고문단 회의 (결의사항 : 기금 모금 기간을 200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2005. 12. 20	동창회관건립실무추진위원회 및 고문단 회의 (결의사항 : 기금 모금 기간을 200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2006. 12. 27	실무팀장 및 고문단 회의 (결의사항 : 기금 모금 기간을 200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2007. 1. 5	실무추진위원회 (결의사항 : 공주시 금성동 191-2번지 4층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의함)
· 2007. 1. 16	고문단회의 (결의사항 : 실무추진위원회의 결의를 전폭 지지하고 매입 건물을 둘러 봄)
· 2007. 1. 22	부동산 매매 계약
· 2007. 1. 26	잔금 정리
· 2007. 2. 28	등기권리증 접수(동창회장학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 완료)
· 2007. 3. 30	감독기관에 정관변경 승인 요청

동창회관 마련에 따른 인사말

오 제 직 회장

2007년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동창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교명 변경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동문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동창회에서는 교명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03년 정기총회에서 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4년여 동안 기금 모금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그 동안 3,600여명의 동문들의 참여로 7억3천여만 원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이 금액으로 회관을 건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무추진위원회와 고문단회의를 통하여 적당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일치를 보고 지난 1월말 공주시 금성동 공산성 입구 연문광장 근처 대로변에 있는 4층 건물을 매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입 대금은 건물 가격 8억 2천만원, 취득세 및 등기비용 3천여만 원 등 총 8억 5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새로 매입한 회관 건물은 2004년 10월에 신축한 4층 건물로, 대지가 86평, 총건평이 199평입니다. 고문단회의와 실무추진위원회 회의에서 3층을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임대 수입으로 어려운 동창회 살림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한 금액 약 1억 2천만원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약정하고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들에게 안내장도 보내고, 미처 동참하지 못하신 동문들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함으로써 모금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동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동문님들께서는 마지막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관건립기금 모금 사업에 꼭 참여하시어 회관 건립의 대 사업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동창회관이 마련되어 정말 흐뭇합니다. 이제부터 동창회의 제 2의 도약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동문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20일

공주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오 제 직

동문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춘 우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만물이 소생하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꽃소식이 멀리 남쪽으로부터 북을 향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이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03년 정기총회에서 동창회관 건립을 위한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4년여 동안 기금 모금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그 동안 3,600여명의 동문들의 참여로 7억 3천여만 원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매년 모금기간을 연장하여 계속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여러 여건상 더 이상 모금이 어렵고, 모아진 금액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회관을 신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추진위원회와 고문단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적당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건물을 물색해 오다가 지난 1월 말 공주시 금성동 공산성 입구 연문광장 근처 대로변에 있는 4층 건물을 매입하고 동창회 장학재단의 법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창회관 매입 대금은 건물 가격 8억원 2천만 원, 취득세 및 등기비용 3천여만 원 등 총 8억 5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족한 금액 1억원 2천만원은 약정하시고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님들께 조속히 납부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아직 참여하지 못한 동문들께 동참을 호소하고, 동창회 경상비 일부를 넘겨받아 완결하려고 합니다.

매입한 동창회관은 2004년 10월에 신축한 4층 건물로, 대지가 86평, 총건평이 199평입니다. 고문단회의와 실무추진위원회에서 3층을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임대 수입으로 어려운 동창회 살림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금 마련 과정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특별과정 동문이면서 건립 취지에 적극 호응해주신 '보광전업사'를 운영하는 조봉순 여사께서 1억이라는 거금을 내어주셔서 기금 모금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前 속초상고 교장이신 이기태 동문(생물, 14)께서 2,000만원을 쾌히 기탁해 주셔서 기금모금에 불씨가 되었던 점은 지금도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동창회관이 마련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제부터 동창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는 새로운 도약이 약속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창회관 건립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문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20일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 춘 우

사진으로 본 동창회관 마련 과정

실무추진위원회(2003. 9. 20)

조봉순 여사 1억원 기탁 기념 사진(2003. 9. 20)

당진지부 순방(2004. 10. 7)

서산지부 순방(2004. 10. 7)

태안지부 순방(2004. 10. 7)

강원지부 순방(2005. 5. 20)

고문단회의(2007. 1. 16)

동창회관 매입 계약(2007. 1. 22)

동창회관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 공주대학교 동창회역사의 커다란 한 획 -

이 화 영 (수학 1회, 동창회고문)

반백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우리 공주대학교는 우리나라의 대학역사를 살펴볼 때, 지방대학이지만 명문의 대열에 속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공주대학교의 전신(前身)인 공주사범대학 졸업생들이 중등교육 일선에서 교사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지켜온 결과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고 본다.

우리 모교가 종합대학교(1991년)로 승격된 뒤, 지금의 위상은 국립종합대학으로 전국규모 7위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발전과 다양한 사회 변화에 적극 대처해 온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사범대학 졸업생이 최근 7년간 교원임용고사에서 합격율 전국 1위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교수님들의 지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 동문인 현직교사들이 우수한 고교졸업생을 모교에 보내준 덕분이라고 본다. 현재 사범대학의 경우, 과거 공주사범대학 시절의 명성을 찾아 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약2만 여명의 현직 교사들이 이 나라 중등교육에 끼친 공헌(貢獻)은,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다.

우리 동창회는 그동안 훌륭한 모교와 유능한 졸업생이 있어서, 매우 강한 응집력(凝集力)으로 잘 운영되어 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동창회관(同窓會館)을 갖지 못하고, 대학 내의 한쪽에 작은 공간을 할애(割愛)받아서 회관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50년의 역사가 있는 대학의 동창회관 건립은 절대절명(絕對絕命)의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던 차 4년 전인 2003년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김승동 당시 동창회장의 발의로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누가 회관 건립을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가가 논의되어 이춘우(李春雨 : 물11회) 동창회 고문이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장' (약칭 건립위원장)이라는 어려운 일을 맡게 되었다.

그 후 약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춘우 건립위원장은 김승동 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관련 여러 임원들과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 동분서주하면서 사사로운 일을 제쳐놓고 전국지부를 순방하면서 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운동에 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모금액이 회관을 건립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고문단회의와 건립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면서 논의를 거듭한 끝에 회관으로 적합한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동창회관 건립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창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동문들의 공이 무엇보다 컸으며, 회관 건립기금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3천 6백여 동문에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선배로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낸다.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추억이 배어있는 공산성의 입구 연문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한지 2년 된 아담한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이로써 우리 동창회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건물이라면, 다른 대학의 동창회관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값진 자산이라고 본다.

동창회관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우리 동창회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도약의 큰 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다시 한번 축하의 뜻을 표한다.

아! 드디어 동창회관이

유 병 학(국어 14회, 공주교육대학교수)

오늘은 기쁜 날! 기쁜 소식을 들은 날입니다.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아! 드디어 동창회관이 마련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동창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순간, 총동창회를 이끌어 오면서 봉사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동창회관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동분서주하면서 애써 오신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원님들의 노고를, 어느 정도 소상하게 알고 있는 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공주시내 공산성 입구 연문광장에 마련된 동창회관은 앞으로 오래 오래 우리 총동창회의 상징으로서 자리 잡아, 동문들의 보금자리로서 그 뜻을 마음껏 펼치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대학 4학년 시절인 1964년, 낡은 건물들만 가득했던 그 당시 캠퍼스에, 초현대식 강당(현 사대부고 체육관)이 준공되어 재학생으로서의 기쁨을 그해 개교기념일(11월1일)을 택하여, 나는 국어과의 회장으로서 커다란 '문학예술제'를 개최하였었습니다.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한층, 이제 동창회관이 마련되었으니, 더 크나큰 잔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창회관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늘은 참으로 기쁩니다.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참으로 행복합니다. (2007년 3월 12일 씀)

쉬임없는 교명변경 반대 활동

- 총동창회 전국지부회장회의 -

총동창회는 지난 해 9월 16일(토) 오후 4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지부회장회의를 개최하고 김재현 총장이 추진 중인 교명변경에 대해 다각적인 저지대책을 논의하고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교명변경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여명의 역대 회장단과 지부회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모교인 공주대학교가 교사양성의 요람으로 중심역할을 해온 역사 깊은 대학임을 상기하고, 공주대학교라는 교명은 60년 동안 법적으로 충남을 대표해 온 유일한 국립대학교로서 전국에 알려진 브랜드화된 고유명칭이지 공주라는 협소한 지역만을 나타내는 이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부회장들은 성명에서 김재현 총장에게 "모교의 자랑스런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무시한 채 교명을 바꾸는 것만이 대학개혁의 출발점임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객관성 없이 교명을 바꾸려는 경거망동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부회장들은 또 "교명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며 총장 퇴진운동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립공주대학교 교명변경 반대 성명서

우리의 모교인 국립공주대학교는 1948년에 개교한 이후 우리나라 중등교사 양성의 요람으로서 그 중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 5만여명의 동문을 가진 역사 깊은 대학교이다.

공주대학교라는 교명은 60년 동안 법적으로 충남을 대표해 온 유일한 국립대학교로서 전국에 알려진 브랜드화된 고유명칭이지 공주라는 협소한 지역만을 나타내는 이름이 아니다. 따라서 공주가 국지적인 의미라는 판단으로 공주대학교라는 교명을 변경하겠다는 생각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다.

김재현 교수가 제5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워 모교의 교명 변경에 전념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김재현 총장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좌시할 수 없어, 김재현 총장의 의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고, 교명변경 및 대학본부 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결의를 담아 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총장은 우리 공주대학교의 빛나는 역사적 가치를 무시하고 교명을 바꾸는 것만이 대학 개혁과 대학 발전의 첫 단추라고 고집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즉각 버리고 객관성도 없이 교명을 바꾸려는 경거망동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총장은 단지 4년간 대학 운영을 위임받은 한시적인 직분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영원히 이어가야할 우리 공주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솔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총장은 대학본부를 천안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교명변경은 바로 대학본부 이전을 위한 첫걸음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총장은 교명변경 논의를 학생과 동문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교명 변경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학생, 동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이므로 교명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4. 치열한 생존경쟁의 사회에서 총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대학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학 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교수들이 학문 연구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앞장서서 교명 변경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대학 내외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으며, 모교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이라도 총장은 즉각 총장 본래의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끝내 저버리고 교명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 동문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총장 퇴진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년 9월 16일

공주대학교총동창회 전국지부회장단

모교 원로교장단 교명변경 반대성명 김재현 총장 항의방문도

모교의 동문 원로 교장단은 9월 20일(수) 오후 2시 공주시청에서 모교의 교명변경과 대학본부 천안이전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3시에 김재현 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전국에서 모인 50여명의 원로교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주대는 60년의 역사를 지닌 국립대학교로, 그동안 가꾸어 온 역사와 전통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그 누구도 절대로 훼손시킬 수 없다"며 "김재현 총장은 공주대학의 오랜 역사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무시하고 교명을 바꾸는 것만이 대학 개혁과 대학 발전의 첫 단추라고 고집하는 생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학의 교명 변경을 논의하게 될 때는 그 명분이 뚜렷해야 하고, 당위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대학 구성원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동문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로교장단은 "협의도 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교명을 변경하려는 태도는 심히 유감이며 면학 분위기만을 해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장이 교명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선거공약을 지키겠다는 고집에 불과하며 단지 4년간 대학 운영을 위임받은 한시적인 총장이 엉뚱한 판단으로 영원히 이어 가야할 공주대의 역사와 전통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행위인 교명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입을 모았다.

원로교장단은 성명을 발표한 후 모교로 김재현 총장을 항의방문하여 교명변경과 대학본부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명변경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모교 출신 원로교장단

총동창회 고문단, 대학본부 측과 회동 교명변경 불가 사유 강력 전달

오제직 총동창회장(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과 이화영, 신대현, 이춘우, 김승동 고문은 지난 10월 23일 오후 2시 공주대학교 김재현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임원(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과 만나 모교 교명변경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공주대학교 총동창회는 학교측의 교명변경 추진 구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교명변경을 반대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면서 총동창회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다음은 이날 밝힌 총동창회의 교명변경 불가에 관한 입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10월 28일자 공주신문의 기사 전문이다.

Q. 교명변경에 대한 총동창회장의 입장은?

A. 저는 국립공주사범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보다도 20년 이상 공주사범대학 교수를 거쳐 공주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대학 구성원 누구보다도 공주대학교를 사랑하고 대학발전을 진정으로 염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60년 전통과 역사가 흔들리는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는 명분(名分)과 동기(動機), 그리고 그에 따라 얻어지는 효과(效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 교명을 변경하여 대학발전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전혀 잘못된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하여 본인은 물론 5만여 동문들은 교명변경을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창회에서는 대학당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명변경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으며 지난 7월 11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명변경은 절대 불가하다는 동창회 입장의 공문과 함께 관계관들에게 주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Q. 왜 명분과 동기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A. 대학의 발전은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우수한 교수님들의 학문연구를 통한 앞서가는 업적, 우수한 입학자원과 함께 학생들의 학문 탐구를 중심으로 한 능력신장, 그리고 어느 대학보다도 유일성(唯一性)을 드러내는 특성화, 산업체를 비롯한 사회가 원하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세계화된 인재교육, 독특한 교육과정 등이 으뜸이 되도록 전 구성원이 이루어 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교명만 바꾸어 유명해진다면 세상에 일류대학이 안 될 대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주대학교는 중등교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된 국립공주사범대학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동문과 시민이 자부심을 갖는 전국적인 대학교입니다. 교명을 변경할 경우 역사성과 정체성을 잃으면서 한번에 60년간 쌓아온 무형의 재산과 인지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명을 바꿀만한 명분도, 동기도, 시기도 적절치 않습니다.

Q. 공주가 소도시이기 때문에 공주대학교의 이름이 전국화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공주는 예로부터 백제의 고도(古都)요, 인구수에 비해 많은 학생이 있고, 국립공주사범대학과 공주교육대학 뿐만 아니라 일류 고등학교 등이 많이 있어서 교육도시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공주시를 모르는 국민이 전국에서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는 〈행복도시〉의 유치와 함께 '공주'는 이제 당당히 전국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인구가 대학교의 명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또한, 예를 들면 외국의 세계적인 대학, 영국의 옥스포드대나 캠브리지대, 미국의 라이스대학 등은 인구 10만 전후의 작은 시골에 위치한 대학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류대학입니다. 그들이 대도시에 위치해서 일류 대학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역사는 비록 짧지만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동대 등은 모두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 있지만 유명한 대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교수님들의 세계화된 연구업적과 학생의 학문 탐구력,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대학을 특화시키므로 일류대학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공주가 소도시이기에 교명을 바꾸어야만 공주대학교가 발전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Q. 천안공업대학, 예산산업대학의 통합에 따른 각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3의 교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견해는?

A. '공주대학교'는 법에 의하여 60여년 동안 충청남도에 소속된 국립종합대학교를 나타내는 교유명사입니다. 아울러 전국에 알려진 '충남'을 대표하는 브랜드화된 국립종합대학교 이름입니다. 개교 당시에는 공주지역을 감안하여 교명을 지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충남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의 브랜드화된 고유이름이지 공주만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주대학교가 서산에 있든, 천안, 예산, 논산, 보령에 있든 충남 어느 곳에 분교가 있든 그 이름은 바꿀 수 없는, 전 국민이 충남에 있는 국립종합대학교하면 떠오르는 고유명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시민이나 예산군민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곳 군민이나 시민들은 공주대학교가 200만 도민을 대표하고 법적으로도 명시된 유일한 국립종합대학교가 앞으로 흔들림 없이 그동안의 명성을 바탕으로 전국에 으뜸가는 대학교로 발전시키는 것이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고등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구성원은 공주대학교가 공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60여년간 충남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립종합대학교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켜야 하겠습니다.

Q. 동창회가 대학발전에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A. 우리는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양성 목적대학으로 60여년 동안 수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 교사 등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발전과 나라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범대학을 모태로 하여 태어난 종합대학입니다. 따라서 공주대학교 출신들은 모교가 가장 역사가 깊은 중등교사 양성의 요람이므로 오늘까지 이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주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와 함께 공주대학교는 전국에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여도의 일부입니다.

또한, 10여년 전에 똑같은 조건으로 국립종합대학교로 함께 출발한 목포, 군산, 창원, 강릉, 순천, 안동 등 7개의 대학교들이 있지만, 현재 전국 44개의 국·공립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공주대학교만이 7위권 안에 들어가는 큰 대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전국 각 학교에서 수 만명의 우리 동문들이 그동안 입시 진학지도를 통하여 우수학생을 모교에 지원시켜서 이루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런 바탕으로 공주문화대학, 예산산업대학, 천안공업대학의 통합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런 역사성에 우리 동문들의 역할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사 양성 목적대학이기에 비록 재벌가나 정관계의 비중 있는 인사는 없지만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의 무형의 재산은 공주대학교 발전의 엄청난 재산이며, 기여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Q. 그밖에 교명변경 반대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A. 전국에 여러 대학들이 교명변경을 하여 대학발전을 꾀했는데 실익(實益)은 없어 아쉬워하는 대학들이 많은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진주농대에서 출발한 경남 진주에 있는 국립 경상대학교도 교명이 만족치 못하여 제2의 교명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주대학교가 (가칭)충청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어도 득(得)이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름들은 전혀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보며, 다만 현재의 이름을 잃었을 때 얻어지는 손실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립대학의 교명에는 서울대, 강원대, 제주대, 전남대 등처럼 지역이 나타나는데 지역을 연상할 수 없는 국립대학은 없다. 따라서 지역이 연상되지 않는 이름으로 바꿀 때 인지도가 있겠는가?

더욱이 현재 충청권에서의 인지도가 7위권 안에 있는데 만일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면 단번에 최하위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낯선 이름을 갖는 신설대학교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만큼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명성을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되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중등교사나 입시를 앞둔 학부모, 학생들은 공주대학교가 충남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점점 학생수가 줄어드는 최근의 현실 속에서 지금처럼 동문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마저 잃게 되고 교명마저 새롭게 바뀐다면 공주대학교의 위기는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아울러 교명을 바꾼다면 전국에 새로운 교명을 알리는데 엄청난 홍보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캠퍼스별 VIP 교체, 학내외의 모든 간판과 표지판들도 바뀌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겠습니까? 그 경비의 일부만이라도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우리 대학만이 나타낼 수 있는 특성화 내용을 가지고 홍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범대학을 비롯하여, 만화예술, 영상정보, 특수동물, 문화재 보존, 최첨단 공학 분야 등을 부각시키면서 각 매스컴을 통하여 널리 홍보한다면 국립공주대학교는 전국에 더욱 알려지면서 우수학생들의 지원이 증폭될 것이며, 충남도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재정지원이 뒤따를 것입니다.

Q.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A. 대학발전을 위해서라면 동창회도 교명변경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교 측에서 시대적 대학의 위기 타개책으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방향의 발전 전략이 될까 고민 끝에 교명 변경안을 내놓았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교명변경에는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과 동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명변경만이 대학의 발전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고 모든 지역사회와 구성원간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논쟁은 갈등만 일으키는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더 크고 높은 차원의 발전계획을 내놓고 교육가족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함께 정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공주시민들은 공주대학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애정과 관심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공주대학교가 사회가 신뢰하고 학생이 찾고 싶은 대학, 지역민과 교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인재양성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 고등교육 인재양성의 상아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하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아울러, 대학발전의 걸림돌이 교명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로 60년 동안 쌓아온 엄청난 무형의 재산을 포기하면서 대학의 이름을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 동문을 대표하여 분명히 밝히면서 앞으로 우리 동창회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교명변경을 강력히 저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대학, 동창회 모두가 합심하여 단결된 힘으로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우리의 영원한 국립공주대학교의 발전에 정진하기를 거듭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명변경 반대 이사회 비상총회

교명변경반대 구호를 외치며 학내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문들

모교 교명변경을 저지하기 위한 총동창회 이사회 비상총회가 11월 11일(토) 오후 2시 모교 자료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3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비상총회는그동안의 교명변경 반대활동 경과보고와 결의문 채택, 향후 활동방안 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동문들은 총회를 마친 후 전체 동문의 이름으로 교명변경 반대 의지를 담아 구호를 외치며 모교 행정관 앞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모교 주최 교명변경 공청회 시민 반발로 무산

모교가 학내 구성원, 지역사회단체들과 갖기로 한 교명변경에 대한 공청회가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모교는 지난 12월 21일 오전 10시 공주캠퍼스 내 산학연구관에서 학생, 교직원, 동창회, 지역사회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명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최종 10개로 압축된 후보 교명들을 공개 설명하고 참석자들 간의 질의, 응답으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명변경 자체를 반대하는 지역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은 공청회장을 점거한 채 거세게 맞서 공청회가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모교 관계자들과 시민단체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일부 주민들은 공청회장 입구에서 공청회 책자 200여부를 수거해 밖에서 불태우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주대의 교명변경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김재현 총장실을 찾아가 이효범 교무처장에게 "교육도시 공주를 대표하는 공주대의 교명변경은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으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일방적으로 교명변경 공청회를 갖는 것이 합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정재욱 공주대 교명변경과 대학본부 이전 총력저지 범공주대책위원회 수석대표는 "교명변경의 의견수렴을 하려해도 순리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공주대는 3일전에 기습적으로 공청회를 갖는다는 공문을 지역사회단체에 보내왔고 공청회 하루 전에 토론자를 요구하는 등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공청회를 무산시킨 이유를 밝혔다.

대학 측 7개 교명후보 발표

모교 집행부는 1월 26일 지난해 12월 교원과 직원, 조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명후보 선호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온대, 새한국대, 충청국립대, 한겨레대, 한국1대, 한국국립대, 한울대 등 7개 교명후보를 공개했다.

이 중 '가온대'와 '한울대'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후보로 떠올랐던 '가온시'와 '한울시' 등에 힘입어 상당한 호응을 얻기도 했으나 행정도시명칭이 '세종시'로 결정되면서 그 빛이 바랬다는 여론이다. 또한 교육부가 국가명이 들어가는 '한국대학교'의 사용을 불가한 방침에 따라 '한국'이라는 이름을 넣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며, 충청을 대표하는 이름 또한 '충청대', '충남대', "한밭대' 등이 이미 존재해 마땅한 교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한편 지난 2006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실시한 교명후보 선호도 조사에는 대상인원 총 1만9402명중 3402명만이 참여함으로써 교명변경 자체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이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총동창회와 범공주대책위 교명변경 반대 공조키로

총동창회는 2월 8일(목) 오후 모교 인근 음식점에서 공주대학교교명변경과 본부이전 저지 범공주대책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교명변경저지를 위해 상호 더욱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대위 위원들과 오제직 회장 등 공주대총동창회 임원단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총동창회는 경과보고에서 동창회정기총회에서 교명반대 결의문 채택 및 전달, 교명변경투쟁위원회 발족, 김재현총장 항의방문, 공주대 재직교수 전체에 반대 입장 이메일 전송, 교육부총리 면담 및 간담회, 변경교명 선호도 조사 철회 요구, 청와대 등에 교명변경반대 서명지 전달 등 교명변경반대운동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제직 총동창회장은 "공주대라는 고유명사는 전 동문의 자존심이자 명예"라고 잘라 말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발 벗고 나서겠지만, 교명변경을 통한 학교발전 계획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무령왕릉 입구에 공주대총동창회관을 매입한 바 있다"고 밝히고,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이를 매입한 것은 김재현총장의 공약에 정면으로 맞서 모교와 가까이 있으려는 총동창회의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와 총동창회는 향후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 공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로 결의했다.

- 회관건립기금 입금계좌 -

- 농협중앙회 : 450-01-006361(재단법인동창회)
- 우체국 : 312314-01-005249 (재단법인 동창회)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김재현 총장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김재현 총장은 공주대학교의 교명 변경 시도를 접어야 합니다.

교명변경 시도가 명분이나 절차나 시기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 교명변경과 명분

교명변경의 가장 큰 명분으로 제시한 "예산이나 천안지역의 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교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총장의 주장에 대하여 그간의 교명변경 반대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동창회에서는 공주대학의 60년 전통과 가치 그리고 4만 3천 동문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허무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지난 11월 11일 80고령의 이화영 투쟁위원장과 오제직 총동문회장(현충남교육감)이 선봉장이 되어 시위 대열을 이끌고 대학본부 앞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직을 걸고 교명변경을 저지하겠다는 핸드 마이크 소리가 총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13만 공주시민은 그들의 생존권과 자존심을 앗아가고 지역정서를 무시한 총장의 무모한 행위라고 단정하고, 지난 10월 11일 군 위원들이 삭발식을 갖고 일천여명 시민이 시위를 벌인 지 함성의 이유를 진정 총장은 모르십니까?

하나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심각한 새로운 걸림돌을 야기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며 교명변경 시도를 접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2. 교명변경과 대학발전

교명변경의 또 다른 명분으로 대학발전이라는 것을 제시하나, 교명을 바꾸면 대학이 발전한다는 논리는 주위의 많은 사례에서 보아 왔듯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총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총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주라는 두 글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총장님, 공주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총장님 되셨습니다. 친밀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저려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대학발전이란 대학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 위에 대학 구성원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학문하는 질 높은 교육으로 승부하는 것이 그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발전은 교명변경이 아니라 대학이 갖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공주대학교 동창회에서는 공주라는 지명에 대하여 공주를 협소한 지역만을 나타내는 이름이 아닌 전국에 알려진 브랜드화 된 고유명사로 교명변경이 대학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기능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것이 교명변경을 접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3. 교명변경과 절차

교명변경에서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차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간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구성원은 총장, 대학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동창회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총장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94년에는 대학구성원의 합의로 충청대학교로의 교명변경을 결의한 적도 있고, 따라서 교명변경은 구성원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10년 이상 된 우리 대학의 숙원 사업입니다"라고 대학구성원 간의 합의 사항을 강조 하셨는데, 지금의 공주대학의 여건과는 전혀 다른 12년 전의 일을 왜곡하여 인용하는 총장의 의도가 의심스러우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토대로 교명변경이 구성원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치고는 너무 심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충청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기로 대학구성원간에 결의 하였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대학교의 학생, 학부모, 동창회, 공주시민의 합의 없는 상황에서 절차상 교명변경을 접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4. 교명변경과 시기

김재현 총장의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것처럼 공주대학은 "대학의 내실과 생존권을 지켜야 하고 대학발전에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오죽하면 교명 변경을 생각하였나 하는 총장의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만 위에서 지적한 대로 교명변경이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더 더욱 시기적으로 총장 취임 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동문 모두는 행정복합도시와 연관하여 공주대학교의 몫을 찾는 중요한 일에 총장의 정치적 역량과 열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교명변경 같은 소모적인 일로 우리의 에너지를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교명변경을 접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김재현 총장님!

공주대학교의 교명 변경 시도를 접어야 합니다. 더 지체하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상처투성이의 볼꼴 사나운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 겁이 납니다. 그간의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과 불신은 우리 공주대학이 보다 큰 거목으로 자라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승패의 논리로 보아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저는 공주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교명변경 시도를 접어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2006. 11. 13.

공주대학교 생물과 10회 송 대 헌

교명변경관련 김재현 총장께 드리는 글

총장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총장에 취임하셨음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인사가 늦었습니다. 총장님께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말씀을 여러 통로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총장자리가 그리 영예로운 자리만은 아닌 시대라서 선뜻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학자로서 쌓아온 명성이나 덕망에 큰 흠집이나 내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대만족' 해야 하는 것이 요즘의 총장 자리가 아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이라는 가시밭길을 자청하신데 대하여 새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70년대 후반에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교수 생활 20년을 훌쩍 넘긴 저로서는 그간 몇몇 대학을 거쳐오면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주소와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지금 대학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은 대학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발전에 대한 통찰을 갖고 계신 분들과 대학을 시장판이나 구멍가게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로 크게 나뉜다고 봅니다. 당연히 총장님께서는 전자에 속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후자에 속한 분들이 나라의 교육정책이나 대학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갈수록 대학이 위기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도 정책의 입안과 실행 단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철학 없는 분들이 대학을 좌지우지하는, 끔찍한 시절입니다. 저는 무식하기도 하려니와 이 자리가 그런 문제를 논할 자리도 아닌 듯 하여 지금 현안문제로 떠올라 있는 '교명변경'에 대한 제 생각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공주사범대학 시절과 공주대학교 시절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공주대학의 명성이 옛만 못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대학 규모의 확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모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과연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옛날의 명성과 위상을 되찾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얼마나 고민하고 계시는가.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하여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모교에 계신 일부 어른들이 진정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학교 이름만 바꿈으로써 대학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계시지는 않는지요? 제가 본 것이 정확하다면 참으로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공주사범대학에서 공주대학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평가절하가 되었다면, 그 절하된 만큼을 보충하기 위해 그동안 뼈를 깎는 노력들을 기울이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엄정한 교수평가, 강의 관리, 학생들의 질 향상, 행정체계의 효율화 등 교육의 내실을 돌보지 못한 책임을 면해 보고자 문제의 핵심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시려는 '꼼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주변에

는 분명 있습니다.

단언컨대, 대학의 내면을 바꾸지 않는 한 어느 지역명을 가져와도 '공주'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대학본부를 옮기시겠다는 곳의 지역 명칭을 붙인다 한들 그간 공주가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대학의 행정을 맡으신 분들은 무조건 '새로운 것'을 선호합디다만, 그러나 새로운 것도 통할 때나 통하는 것이고, 실제 통하는 분야 또한 따로 있는 법입니다. '공주'가 갖는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바탕으로 지혜를 짜내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킨다면, 다른 어느 대학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왜 외면들 하시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총장님! 이제 문제의 본질을 똑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내실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학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좋은 교수와 좋은 학생이 있어야 하고, 좋은 행정이 그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좋은 교수들을 초빙하고, 엄정한 평가와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그 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훌륭한 교수들이 좋은 강의를 하면 좋은 졸업생들이 배출될 것이고, 그에 따라 사회적 평판도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지요. 총장님께서는 열심히 외부로부터 펀드를 따 오시고, 전국의 영재들을 불러오는 일에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셔야 할 겁니다. 그게 어디 총장님의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도 그런 투자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교명 변경' 같은 반짝 행동보다 빛은 나지 않겠지만,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주춧돌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좋은 철학을 바탕으로 백년을 내다보는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보를 양보해 보아도 지금 교명변경 같은 일에 모교의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아닙니다. 하물며 그 교명변경이야말로 분명 득보다는 실이 많은 일인데, 왜 그 일에 자꾸만 미련을 두시는지요? 당장 하셔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대학들 몇몇을 빼면, 처음부터 잘 나가던 대학들이 있는가요? 그들도 초기에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과 투자 덕분에 그들의 브랜드 가치가 오늘날처럼 상승된 것이지요. 그러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의 임기 안에 '열심히 해보자!'는 구성원들의 의욕만 고취시키셔도 대성공입니다.

첫 인사가 본의 아니게 길어졌군요. 모교의 어른들이 무언가 잘못 짚고 있다는 생각에 외람됨을 무릅쓰고 몇 말씀 드렸습니다. 조만간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 뵙는 자리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007. 1. 30.

국어교육과 27회 졸업생
승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규익 드림

총동창회 교명변경 반대활동 일지

- 공주시민 단체와 교명변경 반대 향후 대응책 논의 [07. 02. 08]
- 교명변경 반대 투쟁위원회 개최[06. 12. 27]
- 교명변경 추진에 대한 총동창회 상임임원의 입장 공주대 학생신문에 투고 후 공주대학교 재직 교수전체에게 이메일 전송[06. 11. 15]
- 공주대학교 변경 교명 선호도 조사 철회 요구 [07. 01. 02]
- 교육부총리 간담회 – 이춘우 실무추진위원장, 공주시장, 공주시민단체장, 정진석의원 등[11. 15]
- 공주대학교총동창회 이사회 비상총회에서 결의문 채택[06.11.11]
- 교명변경 추진에 대한 총동창회 입장 공주대 인터넷 학생신문에 투고[11. 06]
- 총동창회장 공주신문과 교명변경반대 특별인터뷰[10. 28]
- 공주대학교 장기발전 간담회 참석 – 교명변경 반대의사 강력히 전달[10. 23]
- 공주시민 교명변경반대 궐기대회 개최[10. 12]
-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반대 원로교장단 성명서"를 총장에게 전달[09. 22]
-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반대 원로교장단 결의대회 및 총장항의 방문[09. 20]
- 교명변경 반대 고문단 및 전국지부회장단 회의[09. 16]
- 교명변경반대투쟁위원회 시의원, 시민단체장과의 간담회[09. 11]
- 교명변경반대투쟁위원회 정진석, 김학원 국회의원 방문[09. 09]
- 교명변경반대 (재)공주시 원로 교장단 모임[09. 08]
-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교명변경반대 의사 전달 – 공주시와 협조[09. 07]
- 교명변경반대투쟁위원회 공주시장, 시의회의장 방문[09. 07]
- 공주대학교총동창회 교명변경반대 투쟁위원회 발족[09. 06]
- 공주시 시정조정실장, 계장, 신관동번영(발전)회장과 동창회의 간담회 개최[09. 01]
- 전국 각 지부장에게 교명변경 반대 2차 서명 협조문 발송[08. 30]
- 교명변경 반대 현수막 설치[08. 11]
- 공주시장 및 공주시 의회의장 방문[08. 09]

▶공주시 유관기관 단체장(정진석 국회의원, 공주시장, 시의회 의장, 공주교육청교육장, 공주시지 역경제협의회장, 공주문화원장, 공주시민단체협의회장)에게 총동창회의 교명변경 반대 입장 발송[08. 08]

▶공주대학교 교명변경추진위원장 및 위원에게 총동창회의 교명변경 반대 입장을 전달[08. 08]

▶이메일이 파악된 6,100여명의 동문에게 교명변경 반대 사유와 교명변경 반대 서명 촉구 문안 발송[08. 02]

▶교명변경반대 서명지(1차, 약 1,400명)를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전달[08. 01]

▶"공주대학교 교명에 대한 공주대학교총동창회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07. 11]

▶"2006 공주대학교총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내용(결의문 포함)을 이메일이 파악된 5000여 동문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07. 04]

▶"2006 공주대학교총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결의문"을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전달[07.04]

▶2006 공주대학교총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교명변경 반대 결의문 채택[07. 02]

▶"신임총장의 교명변경 추진에 대한 총동창회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06. 29]

▶공주대학교 신문에 교명변경에 대한 동창회장의 반대 의사 원고 투고[06. 26]

▶공주대학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면담[06. 26]

▶"신임총장의 교명변경 추진에 대한 총동창회 입장"을 총장에게 공문 전달[06. 12]

▶총동창회 상임이사회 개최[03. 30]

원·고·모·집

본 동창회보 편집실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간으로 12,000부가 발간되는 우리 동창회보는 가장 널리
동문간의 소식을 전하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 원 고 종 류 : 각 지부 소식, 회원 동정(애경사, 승진, 저서발간, 수상 등), 문예(시, 수필 등) 등 무슨 글이라도 좋음.
- 원 고 분 량 : 200자 원고지 5~6매 정도(내용에 따라 넘어도 괜찮음)
- 원고보낼곳 : 우리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 또는 팩스로 보내셔도 됨.
- 시 기 : 연 중

25회 동문 졸업 30주년 모교방문

연구관 앞에서 기념촬영한 25회 동문들

정담을 나누며 오찬을 즐기는 동문들

제25회 동문 졸업 30주년기념 모교방문 행사가 지난 11월 11일(토) 모교 연구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60여명의 동문과 10여명의 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인 음악교육과 재학생의 연주와 성악으로 시작되었다.

김광희(25 · 교육) 추진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행사의 준비과정과 의의에 대해 설명했고, 오제직 동창회장과 김재현 모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뜻 깊은 행사를 축하하고 참석동문들을 환영했다.

이 자리에서 25회 동문을 대표하여 김광희 추진위원장은 동창회발전기금으로 2천만원을 기탁했다.

행사를 마친 후 동문들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교직원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재학시절을 회고하고 서로의 우의를 돈독히 했다.

광주 · 전남지부 총회 개최

광주 · 전남지부 총회가 지난 9월 23일(토) 광주상일중학교(교장 조홍기, 18.수학)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남장원 원로동문(7.생물)으로부터 53회 동문까지 100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기선 회장(18.지리)은 인사말에서 광주전남 지부회원들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지부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이어서 윤기선 회장의 교실혁신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윤회장은 교실진단기법과 효과적인 의사소통기법을 내용으로 하는 T.E.T 강좌를 소개하면서 우리 동문들이 교실에서 성공하는 교사가 되도록 자기개발에 꾸준히 힘써줄 것을 역설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경과보고에 이어 즐거운 오찬을 같이 하였으며, 오후에는 동문의 단합을 다지는 배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광주 · 전남에 거주하는 원로 동문들도 먼 거리를 마다않고 참석하였으며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문들도 대거 참석하여 나이를 뛰어넘은 동문애를 돈독히 했다.

모교의 총동창회에서도 최석남 상임부회장, 이진헌 총무이사가 참석하여 화합을 다졌다.

보령지구 최고지도자과정 연합체육대회

충남 보령지구 최고지도자과정 기별연합 체육대회가 10월 22일(일) 보령시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오랜 가뭄 끝의 단비 속에 성황리 개최된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최고지도자과정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들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가 증정되었으며, 박종걸 지도자과정 총동창회장의 대회사 낭독과 오제직 공주대학교 총동회장과 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의 격려사에 이어 류근찬 국회의원, 김태흠 정무부지사 및 신준희 보령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체육대회에 앞서 실시된 기천문 시연은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체육대회는 족구, 배구, 줄다리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실시되었으며, 경품권 추첨, 사랑실은 각설이 공연단의 공연과 함께 노래자랑이 펼쳐져 동문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동문 45명 교장자격연수 받아

이병해(17, 영어)동문 등 34명의 동문이 10월 16일 부터 11월 17일까지, 박찬각(20, 일사) 동문 등 11명의 동문이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중등교장자격연수를 받았다. 동창회에서는 이들 동문을 방문하여 교원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찬을 대접하며 격려했다. 다음은 교장자격연수 동문 명단이다.

▷이병해(17, 영어, 대전외국어고) ▷전완수(19, 체육, 홍성고) ▷이석만(21, 생물, 마산삼진중) ▷윤우영(21, 수학, 천안중앙고) ▷서병덕(21, 영어, 공주중) ▷임순택(22, 교육, 천안중) ▷차경호(22, 수학, 공주생명과학고) ▷배영화(22, 체육, 강원 양구중) ▷김동식(23, 불어, 청양농공고) ▷조일형(23, 지리, 강경중) ▷윤봉오 (24, 국어, 공주고) ▷최창길(24, 국어, 서산석림중) ▷박원태(24, 물리, 유성고) ▷최희응(24, 수학, 강원 평창 미탄중) ▷한연희(24, 영어, 대전 지족중) ▷김동연(25, 가정, 조치원여고) ▷한상규(25, 수학, 천안신당고) ▷김형중(25, 역사, 경기 고양 저동고) ▷홍석부(25, 영어, 강원 영월 상동중) ▷배정환(25, 일사, 경기 포천중) ▷심현동(25, 지리, 경기 부천 원종고) ▷육옥순(26, 가정, 강원 원주여중) ▷김원중(26, 교육, 충남 청양 화성중) ▷김일종(26, 지리, 강원 삼척여중) ▷김현규(27, 수학, 대전 만년중) ▷성태경(27, 지리, 논산 연무중) ▷윤호선(27, 체육, 경기 김포중) ▷이명성(27, 체육, 공주 이인중) ▷이영이(28, 불어, 충남 도교육청) ▷남궁환(28, 생물, 천안 목천고) ▷이상수(28, 역사, 대전 한밭고) ▷이성왕(29, 물리, 경기 시흥고) ▷박진상(30, 일사, 충남 계룡고) ▷최기학(32, 물리, 충남 태안중) ▷박찬각(20, 일사, 대전 가양중) ▷이정자(23, 가정, 부산 부흥중) ▷홍건표(24, 교육, 대전 원평중) ▷권혁렬(24, 지리, 경기 평택고) ▷장상필(26, 독어, 경기 성남 불곡고) 이태봉(26, 국어, 대전 관저고) ▷박삼석(29, 국어, 경기 수원 수일고) ▷송남섭(29, 물리, 경기 수원 화홍고) ▷이달훈(30, 미술,

경기 수원 청명고) ▷김동문(32, 독어, 대전 충남여고) ▷박교선(34, 한문, 교육인적자원부)

논산지부 총회 개최

논산지부 총회가 지난 11월 3일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부 회원의 애사와 전출입 등을 세심하게 챙기고, 매년 두 차례의 정기모임과 신임 회원 환영회를 갖기로 합의했으며, 총동창회의 교명변경반대 등의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새로 선임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학렬(18, 지리, 논산고 교장) ▷부회장 홍순승(26, 역사, 강경중 교장) ▷부회장 박용래(25, 영어, 연산중 교감) ▷간사 김정선(27, 생물, 논산고 교사)

부여지부 총회 개최

부여지부 총회가 11월 30일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부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모교 교명변경 반대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대전지부 임시이사회 열려

대전지부 임시 이사회가 12월 5일(화) 저녁 유성 경하호텔 무궁화홀에서 열렸다. 서요원 회장(18, 수학)과 천명욱(8, 화학) 고문 등 54명이 참가한 이날 이사회는 오랜만에 성황을 이루어 행사장을 찾은 동문들을 흐뭇하게 했다.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 서요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립사범대 출신으로서의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굳건히 교단을 지켜온 우리 동문들이 그동안 유대의식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동문이 되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천명욱 고문은 격려사를 통하여 우리 동문들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훌륭한 인재들이라고 말하고, 교육의 중심적인 존재로서 교육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앞으로 동문들끼리의 유대의식을 더욱 키워가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신임 임원진의 인사소개와 참석 동문 모두의 자기소개가 있었으며, 내년 3월 총회에 부의할 회칙 개정과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칙개정안은 사립학교 지부와 대학 지부의 부회장 아래에 총무를 두기로 하였으며, 회원의 퇴임 시 송공패를 증정하기로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2007년 회원별 연회비를 1만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동창회 활성화 방안으로 연 2회 정도 동창회보 발간, 카페 개설, 등반대회 개최 등이 제안되었으며, 곧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지부 임원진(2006. 9-2009. 2)은 다음과 같다.

▷회장 서요원(18, 수학, 서부교육청 교육장) 총무 ▷이상수(28, 역사, 한밭고 교감) ▷간사 장제선(24, 체육, 서부교육청 장학사)

2월말 정년 · 명예퇴직 동문에 동창회장 감사장

동창회 본부에서는 2007년 2월말로 정년 및 명예퇴임을 맞은 전국의 동문들에게 일평생 동안 교육현장에서 수고한 공을 높이고 앞으로도 건강하길 기원하는 오제직 동창회장의 감사장을 보냈다. 퇴직동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부〉

▷진옥자(15,가정, 양천중 교장)

〈인천지부〉

▷이향자(16,가정, 관교여중 교장)

〈경기지부〉

▷양재룡(20,지리, 천천고 교장)

〈충북지부〉

▷강윤구(20,교육, 청주동중) ▷최갑순(20,국어, 청주중앙여고) ▷김순화(26,가정, 청주동중) ▷안형철(27,독어, 미원중)

〈대전지부〉

▷박인규(16,체육,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오기섭(24,국어, 대전봉우중) ▷이장래(24,일사, 대전여중)

〈충 남〉

▷최영완(16,체육, 화성중 교장) ▷이수원(19,교육, 천안북중) ▷류제식(21,교육, 천안신방중) ▷김영철(22,체육, 논산공고) ▷성춘택(22,수학, 송남중 교장) ▷이길호(24,역사, 천안중) ▷강병섭(26,영어, 홍성중) ▷서진규(28,영어, 성환중) ▷임재광(29,미술, 충남예술고)

〈전북지부〉

▷이희형(17,국어, 전주고) ▷김완식(19,체육, 전주동중 교감) ▷김홍근(22,교육, 칠보중 교장) 임문호(22,생물, 고산중) ▷권오정(27,지구, 부안 계화중)

〈광주 · 전남지부〉

▷이강섭(17,국어, 광주여고)

〈부산지부〉

▷구자승(16,체육, 화명고 교장)

신입생에 동창회장학금 전달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신입생들과 동창회임원진

2007학년도 모교 신입생에 대한 동창회장학금 전달식이 3월 3일(토) 오전 모교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장학금은 전체수석 입학한 수학교육과 박찬 학생에게 2백만원이, 6개 단과대학별 수석입학생에게 각각 1백만원이 전달되었다. 오제직 동창회장은 이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문탐구와 인격도야에 최선을 다하여 모교를 빛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승동 동창회 장학재단이사장, 이효

범 모교 교무처장, 류해일 사범대학장, 김진규 수석부회장, 최석남 상임부회장, 노영순 수학교육과 교수와 동창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다음은 장학금 수혜자 명단이다.

▷박찬(수학교육과, 전체수석) ▷김성운(수학교육과, 사범대수석) ▷차원주(사회복지 · 법정학과군, 인문사회대수석) ▷홍윤기(지구환경과학과군, 자연대수석) ▷조보연(화학공학부, 공과대수석) ▷양희정(식품영양 · 식품공학과군, 산업과학대수석) ▷박아영(간호학과, 영상보건대수석)

평교사에서 일반고 교장 첫 기록 정읍고 소찬영(27, 독어) 동문

소찬영(27 · 독어) 동문이 평교사로서는 처음으로 일반 공립고의 교장으로 발탁돼 화제가 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개방형자율고(자율고) 시범학교로 지정된 전북 정읍시 정읍고의 공모교장에 이 학교에 근무 중인 소찬영 동문을 발령했다. 지난 해 11월 실시된 이 학교 교장공모에는 다른 학교 교감 한 명과 교사 한 명도 지원했으나 정읍고 학교운영위원회와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소 동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일부 특수목적고와 예체능계 특성화고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장이 된 적은 있지만 일반계 학교에서 평교사가 바로 교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찬영 동문은 지난 2월 발령과 함께 4년 동안 학생 · 교사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자율권을 갖는 정읍고의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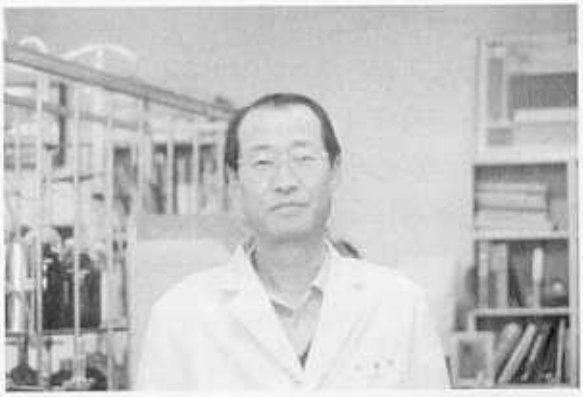
소찬영 동문은 모교 독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정읍고에서 독일어 교사로 교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26년간 전북 지역에서 근무해왔다.

소찬영 동문은 "정읍고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여러 학교에서 진학부장 등을 한 경험을 동료 교사들이 평가해 줘 자의반 타의반 교장공모에 지원했다"며 "상대적으로 낙후한 정읍고를 누구나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병희(18, 화학) 동문 수필 신인문학상 수상

한병희(18, 화학) 동문이 지난해 말 계간 서울문학의 제 30회 공모전에서 '결실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수필로 수필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환갑의 나이에 수필가로서 등단하는 영광을 안았다.

한 동문이 수필을 쓰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3년 충남대학교에 부임하면서부터 학자로서 매일


연구실에서의 한병희 동문

글을 써야 하는 입장에서 딱딱한 글을 쓰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 해에 수필집 등 100권 이상의 책을 읽기도 하고 지역 신문 등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며 글 실력을 쌓았다. 수필을 시작한 동기만큼이나 한 동문의 글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내용이고, 누구나 편안히 읽을 수 있는 문체가 특징이다. 글의 소재는 약 10년간의 미국 유학생활, 고향 청양에서의 유년 성장기,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감흥, 인생무상의 감회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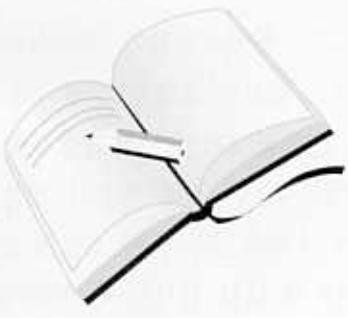
신인상을 안겨준 수필 '결실의 기쁨'은 가을을 맞아 만물이 결실을 맺는데 인간이 얻는 수확이 무엇인가를 묻는 담백한 문체의 글이다. 환갑을 맞는 인생의 결실기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자세도 담겨 있다.

한편 한 동문은 또 다른 결실을 준비 중에 있다. 그 동안 써 온 글들을 묶어 책을 낼 예정. 그동안 발표한 글 가운데 100편의 글들을 모아 『다시 가 본 보릿고개 고향』이라는 수필집을 준비 중에 있다.

한병희 동문은 주변에서 화학(연구)하는 사람이 무슨 글이냐며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며, 지난번 수필 공모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것도 '아직은 딱딱한 글이지만 더 열심히 써보라는 채찍'으로 이해하며 수필에 더욱 정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글 쓰는 일은 입학식은 있지만 졸업식은 없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환갑이지만 수필가로서 이제 제대로 된 한발짝을 떼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할 겁니다"

한 동문은 1969년 모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7년 간 인천여상, 인일여고에서 근무한 후 미국 North Dakota 주립대에서 박사 및 박사 후 과정을 마친 다음 1983년부터 현재까지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로 근무 중이다. 한 동문은 2003년 충남대가 처음 제정한 최우수 강의상에 첫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학문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동안 초음파화학, 규소화학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미백제 개발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수학교육과 제11회 후배사랑 도서 전달식

수학교육과 김금일 동창회장(19회, 공주사대부설고 교장)은 지난 3월 6일(화) 모교 517호 전공강의실에서 전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배사랑 도서전달식"을 가졌다. 올해로 11년째 이어져 내려온 이 행사에서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동문들은 후배에 대한 사랑과 학과발전에 대한 기대를 모아 35,000원에 해당하는 전공도서(미분적분학)를 36명의 신입생 모두에게 기증했다. 한편 수학교육과에서는 2006년도에 창립된 [Connecting 공주대수학교육과]를 통해 매월 1만원씩 모교학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난 3월 2일에는 2, 3, 4학년 재학생 140여명 모두에게 전공필수서적 1권씩을 기증하였다.

김승동 고문 제5대 동창회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제16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김승동 고문(13, 수학)이 이춘우 이사장의 후임으로 제5대 동창회장학재단이사장에 취임하였다.

김승동 신임 이사장의 선출은 지난 2006년 12월 21일에 있은 동창회장학재단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임기는 2007. 2. 28 ~ 2011. 2. 27까지 4년이다.

한편 새로 취임한 김승동 이사장은 기본 재산의 확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모교의 후배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였다.

동창회장학재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급	성 명	비 고
고 문	이화영(1회, 수학)	前 공주사대 학장
	신대현(7회, 화학)	前 건양대 총장
이 사 장	김승동(13회, 수학)	모교 명예교수
이 사	이춘우(11회, 물리)	모교 명예교수
	오제직(13회, 화학)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장
	이명기(18회, 교육)	모교 교육학과 교수
	강용구(21회, 영어)	모교 영어교육과 교수
	조봉순(최고경영자과정)	보광유치원 이사장
상임이사	김영유(25회, 물리)	모교 물리학과 교수
감 사	이정웅(13회, 수학)	前 홍성고 교장
	김진규(18회, 국어)	모교 국어교육과 교수

부속고 손명균 군 KBS 골든벨 울려

공주사대부고 손명균 군(3년)이 KBS 1TV의 '도전 골든벨'에 도전, 제57대 골든벨로 탄생했다. 손 군은 8월 9일 녹화된 이 프로그램에서 시사, 문학, 예술, 상식, 과학 등에 관한 50개 문제를 모두 맞춰 골든벨을 울렸다. 손 군에게는 해외 문화탐방의 기회가 주어지며, 대학 입학시 입학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게 된다.

학교측은 손 군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평소 다양한 독서와 깊이 있는 공부를 꾸준히 한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도전 골든벨 공주사대부고편은 9월 17일 오후 7시에 방영되었다.

언어교육원 한국어연수생 입학식 개최

입학식 후 기념촬영한 제6기 중국인 한국어연수생 일동

모교 언어교육원(원장 이관우)은 9월 20일(수) 오전 10시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김재현 총장과 처·국장 및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6기 한국어 연수생 입학식 행사를 개최했다.

66명의 제6기 중국인 연수생들은 이날 입학식과 함께 공주대학교에서의 한국어수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김재현 총장은 환영사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국유학을 결심하게 된 연수생들의 용기를 치하하고, 연수기간 동안 한국어와 한국사회를 잘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한중 양국간의 교류에도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언어교육원에서는 지난 2004년 3월 제1기 한국어 연수생 23명의 입학을 시작으로 매 학기 중국인 연수생을 받아들여 한국어연수를 시킨 후 본교 대학 학부에 신·편입시킴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언어교육원에서는 특히 2006년 2학기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강사진을 확보하여 반별 전담지도체제를 갖추고, 전용강의실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개교 58주년 기념행사

모교는 지난 10월 31일(화)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김재현 총장을 비롯한 학무위원,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5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기념행사에서는 장기근속 교원 35명, 직원 24명과 대학발전 유공자 5명, 대학발전 유공학생 5명 등 총 6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모교 교원 임용고사 6년 연속 최다 합격

모교는 2007학년도 전국 교원임용고시에서 최다 합격자를 내어 6년 연속 최다 합격자 배출의 영예를 안았다.

모교 사범대학(학장 김진규)은 2007학년도 전국 교원임용고시 최종합격자 발표결과, 총 294명이 합격해 6년 연속 전국 최다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중등교사 선발은 전국 13개 국립사범대학(교원대 포함)졸업자와 27개 사립사범대학 졸업자, 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 이수자 등이 응시하여 평균 13.9: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교 사범대학에서는 정원의 약 150%를 뽑는 1차 시험(교직 및 전공 필답고사)에서 363명이 합격했고, 2차 시험(논술, 면접, 수업실기고사)을 거쳐 최종적으로 294명이 합격했다.

김진규 사범대학장은 "공주대 임용고사 성적이 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이는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준 교수들의 노고와 함께, 선배, 행정직원, 조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여군장교 전국 최다 선발

모교가 올해 여군 장교 선발시험에서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모교에서는육군본부가 실시한 제52기 여군사관후보생 선발결과 최종 합격자 8명과 예비후보 합격자 2명 등 모두 10명의 합격자를 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모교는 합격자(예비후보 포함)수는 같지만 최종 합격자 수에서 영남대(최종 합격자 7명, 예비후보 3명)를 앞질렀다. 이어 전북대가 9명(최종합격 7명, 예비 2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병에서 복무하게 될 김자영(건축학과 4년)양은 "여성으로서 매일 체력단련을 하느라 힘들었는데 합격의 영광을 안게 돼 기쁘다"며 "금녀의 벽이 허물어진 군에서 훌륭한 여성장교 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유홍위 모교 학군단장(중령)은 "최종선발 전단계인 2차 합격 때에는 11명을 합격시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며 "학군단을 연중 개방해 희망자들에게 맞춤식 시험대비 훈련을 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190명을 선발한 이번 시험에는 전국에서 1120명이 응시해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했다. 육군본부가 전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이 시험은 최근 대학생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여대생들에게 금녀의 벽을 허문 안정된 직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1급 시각장애인 국내 최초 교원임용고사 합격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영어 교사가 모교에서 탄생했다. 1급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2월 모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최유림(24세 · 사진) 동문이 2007학년도 충남도 임용고사 영어과에 당당히 합격하여 3월 1일자로 천안 두정중학교에 발령받았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불편과 설움을 딛고 줄곧 교사의 꿈을 키워온 최 동문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일반교사의 꿈을 키워 마침내 올해 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영어과)에서 합격했다.

최동문은 지팡이에 의지하며 4년간의 대학생활을 헤쳐 나가면서 특수교육 자격증과 영어교육과 영어교사 중등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했으며 4년 내내 평균평점 B+(3.82)를 받았다.

모교 관계자는 "그동안 특수교육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장애우는 몇몇 있었으나 최유림 학생처럼 시각장애인 1급인 사람이 일반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은 전국 최초"라며 "장애를 딛고 교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을 다하는 우수한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 학위수여식 거행 박사 18명 등 2,780명 배출

모교 200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3일(금) 오전 11시 대학본부 현관 앞에서 거행되었다. 김재현 총장과 교직원 및 내빈 등이 참석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8명, 석사 430명, 학사 2,332명 등 모두 2,780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 응시해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육군본부가 전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이 시험은 최근 대학생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여대생들에게 금녀의 벽을 허문 안정된 직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3월 1일자 교장 · 교감급 동문 인사

【서울지부】

송희면(21,지구) 면목고 교감 ⇒ 둔촌고등학교 교감
김동일(21,수학) 서울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 명일여자고등학교 교장
권태익(23,화학) 방원중 교감 ⇒ 삼정중학교 교장
임명호(29,수학) 숭인중 교감 ⇒ 고덕중학교 교감
이성숙(30,미술) 서울동작교육청 장학사 ⇒ 광양고등학교 교감
이대영(31,생물) 서울시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 장학사 ⇒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 장학사
오낙현(33,영어) 경기여고 교감 ⇒ 서울강동교육청 장학관
임종룡(34,일사) 서울동부교육청 장학사 ⇒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 장학사
신재순(34,상업) 덕수정보산업고 교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진로교육과 장학사
송태영(34,물리) 서울서부교육청 장학사 ⇒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 장학사
김범용(34,수학) 서울강동교육청 장학사 ⇒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장학사
복영숙(35,한문) 서울강서교육청 장학사 ⇒ 서울서부교육청 장학사
이상배(35,상업)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서울성동교육청 장학사
안윤호(36,국어) 잠신고등학교 교사 ⇒ 서울성북교육청 장학사
김재영(36,영어) 서울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 서울강남교육청 장학사
정환희(38,국어) 서울성북교육청 장학사 ⇒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장학사

【인천지부】

김용문(21,화학) 작전고 교감 ⇒ 간재울중학교 교장
문길모(22,수학) 신흥중 교장 ⇒ 청량중학교 교장
유영옥(25,체육) 검단중 교감 ⇒ 북인천중학교 교감
이대열(25,수학)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신동일(29,역사) 인천영선고 교사 ⇒ 인천예일고등학교 교감
김수남(31,국어)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작전고등학교 교감
이순근(31,지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학익여자고등학교 교감
서수원(31,물리) 부평고 교사 ⇒ 인천예술고등학교 교감
조용규(32,지리) 계양고 교사 ⇒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한공희(32,체육) 인천북부교육청 장학사 ⇒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이명신(34,수학) 옥련여고 교사 ⇒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고경수(34,영어) 강화여고 교사 ⇒ 검단중학교 교감
서상교(35,체육) 신송중 교사 ⇒ 인천북부교육청 장학사
이병욱(35,한문) 인천여고 교사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경기지부】

김성기(18,체육)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 경기교육정보연구원 원장
김영규(20,체육) 상현중 교장 ⇒ 청운중학교 교장
곽진영(21,지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 경기과학교육원 원장
장규훈(22,지구) 곤지암중 교감 ⇒ 덕소중학교 교장
박정태(23,물리) 장왕중 교장 ⇒ 양지중학교 교장
홍태식(23,지리) 교하고 교감 ⇒ 두일중학교 교장
홍완성(24,생물) 안성고 교감 ⇒ 현화고등학교 교감
김동철(25,물리) 삼성중 교장 ⇒ 탄현중학교 교장
김형중(25,역사) 저동고 교감 ⇒ 정발고등학교 교감
이홍규(25,화학) 정발고 교감 ⇒ 경기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이하원(26,물리) 산본고 교장 ⇒ 경기도교육청 과학산업과 장학관
윤병석(26,지리) 평택교육청 장학사 ⇒ 영덕중학교 교장
임한영(26,생물) 동성중 교감 ⇒ 원일중학교 교장
최승웅(26,수학)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운암고등학교 교장
조능식(26,독어) 용호고 교장 ⇒ 수원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양청욱(26,불어) 봉담중 교감 ⇒ 기산중학교 교장
권혁수(27,수학) 화성교육청 장학사 ⇒ 안화고등학교 교장
박일순(27,체육) 명덕중 교장 ⇒ 여주교육청 학무과장
김춘기(27,지구) 신일중 교사 ⇒ 덕명중학교 교감

조현숙(28,미술) 경수중 교사⇒ 몽담중학교 교감
심재린(28,역사) 성곡중 교장⇒ 김포중학교 교장
김채택(28,물리) 경남중고 교장⇒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김효경(29,지구) 함현중 교감⇒ 심원중학교 교감
박형재(29,일사) 주엽고 교감⇒ 백암고등학교 교장
최경자(29,체육)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권선고등학교 교감
조기형(29,물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안양고등학교 교감
박순재(29,지리) 일동고 교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교감
이성수(29,지구) 경기도제2교육청 장학사⇒ 도당고등학교 교감
최택수(29,미술) 용인고 교사⇒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감
한영애(29,국어) 금파중 교사⇒ 대곶중학교 교감
조동렬(30,수학) 평내중 교사⇒ 조종중학교 교감
서재식(30,고육) 의정부고 교사⇒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교감
김학곤(30,일사) 숙지고 교사⇒ 운암고등학교 교감
이종희(30,생물) 저동고 교사⇒ 교하중학교 교감
류종수(30,체육) 권선고 교사⇒ 인덕원고등학교 교감
김용준(30,생물) 권선고 교사⇒ 발안중학교 교감
성백석(30,물리) 용인고 교감⇒ 수지중학교 교감
강진숙(30,가정) 양지고 교사⇒ 대흥중학교 교감
조충신(31,국어) 군포교육청 장학사⇒ 흥진고등학교 교감
이동찬(31,일사) 장기중 교사⇒ 중원중학교 교감
문 호(31,지구) 영덕중 교사⇒ 원삼중학교 교감
유창옥(32,역사) 여주교육청 장학사⇒ 대월중학교 교감
황은연(32,영어) 경기외국어연수원 교육연구사⇒ 서원고등학교 교감
조준기(32,영어) 이천교육청 장학사⇒ 평택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박강용(32,일사) 율곡연수원 교육연구사⇒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두희(32,화학) 경기과학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경기도교육청 과학산업과 장학사
김명환(32,생물) 성안고 교사⇒ 경기도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배연옥(32,가정) 광주교육청 장학사⇒ 경기율곡연수원 교육연구사
양영권(33,지구) 광주고 교사⇒ 동백고등학교 교감
허명회(33,불의) 안양교육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과학산업과 장학사
김석제(34,한문) 군포교육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정재아(34,물리) 군포정산고 교사⇒ 부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원환(35,역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교육인적자원부 장학사
정태회(35,중어) 율곡연수원 교육연구사⇒ 화성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김형태(35,일사) 장안고 교사⇒ 안산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신영(36,가정) 남양고 교사⇒ 평택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정필영(36,수학) 파주교육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종민(37,중어) 안일고 교사⇒ 경기외국어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강원지부】

현동현(19,영어) 방산중 교장⇒ 춘천여자중학교 교장
김천수(22,생물) 신천중 교장⇒ 황둔중학교 교장
김일준(22,화학) 고한여고 교장⇒ 원주여자고등학교 교장
최희웅(24,수학) 미탄중 교감⇒ 청일중학교 교장
홍석부(25,영어) 상동중 교감⇒ 신천중학교 교장
이종선(29,지구) 왕산중 교사⇒ 진부고등학교 교감

【전북지부】

엄우섭(22,영어) 장수고 교장⇒ 전북교육문화회관 교육연구관
송용한(24,독어) 전북해양수련원 교육연구사⇒ 군산교육청 장학사
최남선(25,일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연구관⇒ 전라북도해양수련원 교육연구관
소찬영(27,독어) 정읍고 교사⇒ 정읍고등학교 교장
정광수(28,수학) 전주제일고 교사⇒ 전북학생교육원 장학사
서동주(28,교육) 진안제일고 교감⇒ 임실서고등학교 교감
김도중(30,영어) 군산여고 교감⇒ 정읍중학교 교감

【광주 · 전남】

조홍기(18,수학) 상일중 교장⇒ 광주동명중학교 교장
윤기선(18,지리) 담양고 교장⇒ 전남교육연수원 원장
송병국(19,영어) 나주봉황고 교장⇒ 장성신흥중학교 교장
송도환(22,화학) 문흥중 교감⇒ 운림중학교 교장
최영산(23,지구) 전남공고 교감⇒ 대자중학교 교장

선득래(24,독어) 완도신지중 교장⇒순천승주중학교 교장
김도명(25,국어) 충장중 교감⇒유덕중학교 교장
김호룡(26,생물) 신안흑산중 교장⇒장흥대덕중학교 교장

【충북지부】

이판동(18,화학) 목도고 교장⇒복대중학교 교장
김종경(19,역사) 보은교육청 장학관⇒충북예술고등학교 교장
구중천(21,체육) 한송중학교 교장⇒충주중앙중학교 교장
오세기(21,체육) 충북체육고 교장⇒충청북도청원교육청 장학관
임재준(21,지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관⇒한국교원대부설중 교장
홍기섭(22,화학) 충주여중 교감⇒수산중학교 교장
유영근(22,지구) 안내중 교감⇒청산중학교 교감
이창근(22,국어) 가경중 교감⇒괴원중학교 교장
최철환(22,수학) 충북예술고 교장⇒충청북도진천교육청 교육장
권대홍(22,지구) 감물중 교감⇒괴산고등학교 교감
김태일(23,교육) 진천교육청 장학관⇒서경중학교 교장
김화태(23,지구) 현도중 교감⇒청천중학교 교감
장광수(24,지구) 옥천교육청 장학관⇒증평여자중학교 교장
신선인(24,수학) 원남중 교장⇒송절중학교 교장
신철환(24,지구) 충북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충청북도교육청 과학실업교육과 장학관
이기돈(24,영어) 청주여중 교사⇒신니중학교 교감
이상준(25,국어) 상촌중 교장⇒현도중학교 교장
한상윤(26,일사) 충주고 교장⇒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김진완(26,화학) 금천중 교감⇒산척중학교 교장
송주복(27,생물) 율량중 교사⇒봉암중학교 교감

【충 남】

김길환(17,영어) 천안중앙고 교장⇒충남교육연수원 외국어교육원 원장
전완수(19,체육) 홍성고 교감⇒공주여자중학교 교장
안병욱(20,영어) 아산교육청 학무과장⇒아산교육청 교육장
황치은(21,물리) 서산농공고 교장⇒충남과학직업교육원 교육연구관
오춘근(22,국어)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예산교육청 교육장
김인식(22,지구) 천안두정고 교감⇒덕산중고 교장
임순택(22,교육) 천안중 교감⇒비인중학교 교장
한장석(22,국어) 봉황중 교감⇒화성중학교 교장
조재영(22,수학) 충무교육원 연수부장⇒연기교육청 학무과장
이철훈(22,물리) 충남과학직업교육원 교육연구관⇒천안월봉고등학교 교장
배광석(22,생물) 비인중 교장⇒남일중학교 교장
유장준(23,화학)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천안오성고등학교 교장
김동식(23,불어) 청양농공고 교감⇒광천정보고등학교 교감
심성례(23,국어) 영인중 교장⇒서산교육청 학무과장
주진영(23,국어) 금호중 교감⇒서산농공고 교장
오순옥(24,체육) 남성중 교감⇒이인중학교 교감
박인보(24,지구) 고대중 교장⇒송남중학교 교장
이희원(24,지리) 용남고 교감⇒송산중학교 교감
오선규(24,영어) 충남교육연수원 교수부장⇒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홍보과 장학관
김세일(24,화학) 공주여중 교사⇒성연중학교 교감
황운선(24,체육) 천안성성중 교감⇒충남체육고등학교 교감
최창길(24,국어) 서산석림중 교감⇒홍동중학교 교장
김영선(25,독어) 남성중 교장⇒청양교육청 학무과장
김동성(25,교육) 태안여중 교감⇒안리포중학교 교장
김광희(25,교육) 목천중고 교장⇒천안중앙고등학교 교장
서종완(25,역사) 광천정보고 교감⇒홍성고등학교 교감
양인모(25,화학) 목천중 교감⇒천안오성고등학교 교감
김성기(26,교육) 청양교육청 학무과장⇒목천중고 교장
서성보(26,체육) 온양고 교장⇒천안쌍용중학교 교장
권순덕(26,지리) 천안쌍용중 교장⇒충남교육연수원 교수부장
구자일(26,영어) 당진정보고 교감⇒인주중학교 교감
김원중(26,교육) 화성중 교감⇒유구중학교 교감
이대구(27,국어)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홍보과 장학관⇒중등교육과 장학관
임경호(27,수학) 당진중 교감⇒영인중학교 교감
정경훈(27,국어)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석성중학교 교감
박상익(27,생물) 송산중 교감⇒성환고등학교 교감

조병호(27,영어) 석성중 교감 ⇒ 용남고등학교 교감
원동규(28,영어) 고대중 교감 ⇒ 산창중학교 교감
김인수(28,화학) 합덕여중고 교장 ⇒ 충청남도교육청 과학실업정보과 장학관
김은자(28,국어)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온양여자고등학교 교감
박애란(28,가정)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 충청남도교육청 과학실업정보과 장학사
김상철(28,역사) 병천고 교사 ⇒ 충무교육원 교육연구사
김충식(28,교육) 온양용화고 교사 ⇒ 당진중대호지분교 교감
오능근(29,국어) 충무교육원 교육연구사 ⇒ 연기교육청 장학사
이석우(29,국어) 태안교육청 장학사 ⇒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홍보과 장학사
안덕규(29,영어) 유구중 교감 ⇒ 충남외국어교육원 교수부장
송종석(29,역사) 남면중 교사 ⇒ 근흥중학교 교감
이환구(30,체육) 결성중 교장 ⇒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관
허심복(30,국어)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부성중학교 교감
조영문(30,지구) 예산전자공고 교감 ⇒ 선도중학교 교감
문동준(30,수학) 충무교육원 교육연구사 ⇒ 예산교육청 장학사
이재각(30,역사) 대천고 교사 ⇒ 보령교육청 장학사
최재룡(31,국어) 공주교육청 장학사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조미선(31,가정) 논산교육청 장학사 ⇒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함순란(31,체육) 예산교육청 장학사 ⇒ 천안교육청 장학사
가경신(32,국어) 천안교육청 교육연구사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은여장(32,체육)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천안성성중학교 교감
이석구(33,생물) 충성교육청 장학사 ⇒ 논산교육청 장학사
신열호(33,역사) 연기교육청 장학사 ⇒ 충무교육원 교육연구사
박용주(33,불어) 금성여고 교사 ⇒ 태안교육청 장학사
김미애(34,가정) 충무교육원 교육연구사 ⇒ 천안교육청 교육연구사
박상식(34,체육) 천안교육청 장학사 ⇒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박대규(35,물리) 해미중 교사 ⇒ 예산교육청 장학사

김덕주(21,수학) 대전송촌고 교장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전용우(22,역사) 대전노은중 교감 ⇒ 유성고 교감
이선원(24,교육)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대전전민중학교 교장
김정길(24,국어)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
박원태(24,물리) 유성고 교감 ⇒ 충남여자중학교 교장
홍건표(24,교육) 대전월평중 교감 ⇒ 대전만년중학교 교장
맹용호(24,국어) 대전교육연수원 장학사 ⇒ 신탄진고 교감
장채선(24,체육) 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한밭여중 교감
윤수진(25,교육) 시교육청 정보과학기술과 장학사 ⇒ 대전태평중 교감
강병오(25,체육) 대전느리울중 교감 ⇒ 대전정림중 교감
강봉훈(26,수학) 대덕고 교사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태봉(26,국어) 대전관저고 교감 ⇒ 대전기오고등학교 교장
강세경(26,독어) 대전과학고 교사 ⇒ 대전외국어고 교감
이칠봉(27,체육) 대전태평중 교사 ⇒ 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병한(27,미술)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대전교육연수원 장학사
황인성(27,영어) 대전노은고 교사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우영(27,지리) 대전대화중 교사 ⇒ 대전대청중 교감
김현규(27,수학) 대전만년중 교감 ⇒ 대전교육연수원 교학부장
이윤희(27,가정) 대전둔산여고 교사 ⇒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유명익(28,지학)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갈마중 교감
장길환(28,영어) 대전변동중 교감 ⇒ 한밭고 교감
이상수(28,역사) 한밭고 교감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조준형(29,체육) 대전여고 교사 ⇒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이창로(30,지학)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대전관저고 교감
이해용(30,국어) 동부교육청 장학사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고유빈(32,가정) 시교육청 정보과학기술과 장학사 ⇒ 대전상천중 교감
박귀미(33,역사) 동부교육청 장학사 ⇒ 대전용전중 교감

【대전지부】

이병해(17,영어) 대전외고 교감 ⇒ 대전둔원중학교 교장
이만화(18,물리) 시교육청 정보과학기술과장 ⇒ 대전송촌고등학교 교장
서요원(18,수학) 서부교육청교육장 ⇒ 대전둔원고등학교 교장

【부산지부】

장호형(22,지구) 금정여고 교감 ⇒ 구남중학교 교장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06. 9. 15 ~ 2007. 3. 15 입금분)

【서울지부】
이봉구(12, 수학) 정진환(19, 교육) 이일화(22, 국어)

【인천지부】
오혜성(25, 영어) 유영옥(25, 체육) 윤덕렬(28, 물리)

【경기지부】
한명숙(26, 가정) 이남진(27, 수학) 김지태(29, 생물) 장영하(31, 생물) 박두희(32, 화학)

【강원지부】
강신성(14, 화학) 김홍철(30, 수학)

【충북지부】
김광면(27, 지구) 김경호(31, 수학) 권오석(34, 상업)

【대전지부】
최영환(12, 국어) 김명세(15, 체육)

【충 남】
이규환(13, 국어) 박정수(15, 지리) 나창순(20, 지리) 황상하(21, 가정) 임순택(22, 교육)
김동연(25, 가정) 김기수(26, 체육) 박상숙(26, 역사) 최규학(27, 지리) 한이영(27, 체육)
우길동(31, 체육) 전종현(35, 물리) 김준태(35, 생물)

【광주 · 전남지부】
조원래(19, 역사) 한영식(22, 국어) 양희원(23, 교육) 정석기(25, 지리)

【전북지부】
김욱환(11, 화학)

동창회관 건립기금 기탁자 명단

(2006년 9월 15일부터 2007년 3월 26일 까지 납부 현황)

※ 근무처는 기탁 당시의 재직기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분납의 경우 총액을 게재하였습니다.

【서울지부】

- 회임동문
  5,000,000원 유호준(10, 생물)
-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1,000,000원 양신희(35, 물리)

【인천지부】

- 신흥중학교
  50,000원 박정숙(53, 특수)

【충남】

- 회임동문
  10,000,000원 백승택(8, 국어)
- 공주대학교
  2,000,000원 윤용혁(23, 역사), 김준태(32, 물리)
  1,000,000원 김희수(31, 지구)
- 충청남도교육청
  200,000원 김명택(37, 역사)
  100,000원 이환구(30, 체육)
- 충남과학직업교육원
  300,000원 황치은(21, 물리)
- 천안부성중학교
  1,000,000 김용화(28, 영어)
- 천안성성중학교
  200,000원 윤여장(28, 체육)
- 청기중학교
  200,000원 이용연(22, 지구)
- 웅천고등학교
  100,000원 윤형진(24, 영어)

【대전지부】

- 충남대학교
  100,000원 한병희(18, 화학)

【기타】 850,000원 24회모교방문동문일동(추가납부)

봄철 건강관리

불청객 황사가 몰려온다. 황사는 화창하고 따스한 봄의 기운을 흙 먼지들로 덮어 버린다. 봄을 맞아 기지개를 펴야할 몸을 망칠 수 있다. 올 봄 황사는 오염물질의 농도도 짙어져 테러 수준이다. 천식 ·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과 결막염 · 안구 건조증 등 안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예방법을 알아본다.

▶미세 먼지 코 점막자극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계속되는 황사의 공격은 우리의 코 건강을 위협한다. 황사 속 미세 먼지가 코 점막을 자극하여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고, 증상을 악화시킨다.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이 소위 '알레르기 비염 삼총사'이다.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재채기를 하고, 콧물로 이를 씻어내려 한다.

코 가려움증, 두통, 후각장애, 식욕부진, 목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황사에 노출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청결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 요법에는 항히스타민제, 점막수축제, 스테로이드제제 등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코 속에 국소적으로 뿌리는 스프레이 형식도 쓰인다.

▶손으로 눈을 비비지지 말고

황사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점막을 자극하여 손상을 준다. 따라서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많이 흐르며, 눈 속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까끌까끌하고, 눈 주위가 부어오르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는 각막상피가 벗겨져 심한 통증을 느끼고, 심하면 출혈을 일으킨다.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주거나 인공누액을 눈에 넣어주면 도움이 된다.

인공누액은 눈물과 동일한 성분으로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렌즈를 평소보다 더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자주 건드리면 결막이 젤리처럼 부풀어오르고 염증이 각막까지 스며들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한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 씻고

봄철 피부의 특징은 얼굴이 땅기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윤기 없이 건조하며 거칠다. 환절기의 건조함은 피부각질을 딱딱하고 두껍게 만들어 잔주름을 유발한다. 피부 건조가 심해지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건성습진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피부관리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할 것은 화장보다 세안이다. 얼굴에 먼지나 꽃가루 등이 남아 있으면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쉽다.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성 클렌징폼 또는 미용비누로 세안을 한다. 얼굴을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깨끗한 물에 여러번 헹구어 낸다. 외출 전에는 크림을 발라 피부에 보호막을 만든다.

조류독감에 관하여 …

지난 겨울 전북 익산에서 닭의 집단폐사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고병원성(H5N1)으로 판명되고 연이어 평택과 양평, 익산에서도 닭 폐사가 발표되면서 보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지난 2003년 말 조류인플루엔자(AI)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구조)

이번 AI로 발생 인근지역 닭, 달걀의 외부 이동이 제한되고 부화장은 폐쇄됐으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닭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먹을거리도 위축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정부는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 것과 평상시와 같이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에 적극 동참해 힘들어하는 농업인에게 힘과 용기를 주자고 독려하고 나섰다.

조류독감 국내 인체감염 아직 없어

고병원성은 전염성이 매우 빠르고 폐사율도 높다. 익산의 경우 발생농장의 감염된 계사 내 닭 6천마리가 4일만에 모두 폐사됐다. 그리고 인체감염도 가능한 바이러스다. AI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1997년 이래 인체감염사례가 보고됐고 지금은 세계적 대유행을 걱정하게 됐다. 닭, 오리 같은 집조류와 철새 사이에서 전염되는 것으로 예방책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육농민들이 감염됐지만 인간대 인간 감염으로 발전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만약 사람 인플루엔자와 조류인플루엔자가 만나 변이가 생기면 대규모로 유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세계보건기구는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체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지역사회 수준으로 전파력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인체감염예가 없다는 것, 또 WHO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라 마련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응능력 크게 강화

지난 2003년 미국은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방침을 발표했으며 WHO도 지난 해 5월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단계를 수정하고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백신 생산, 발생 시 전파 방지책, 발병자 치료 등의 분야를 총괄하여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 의삼사례 조기발견 및 조치, 해외 인체감염시 국내유입 대비 등 세가지 방향으로 나눠 예방 및 관리지침을 만들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침에선 국내에서 발생하면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대책반이 가동되고 전염병관리, 검역지원, 역학조사,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이 구성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저·중·고위험군 분류에 따른 단계적 조치도 마련하여 이번 익산의 경우에선 환자 발생감시와 예방조치수행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중등도의 경우엔 발생농장 주변 500미터 이내와 위험지역으로 나눠 각종 대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심환자 발생 후엔 신고와 함께 검채채취, 의뢰를 하고 증산이 약한 의심환자는 가택치료도 가능하며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1인실입원치료를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인류를 위협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만이 AI대유행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국립대학 통합 성공모델 1호

국립예산농전, 국립공주문화대학, 국립천안공대와의
통합으로 대학 운영의 일대 혁신과
경쟁력 강화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1 University!

행정도시의 중심대학!

국립공주대학교 VISION +1 UNIVERSITY PROJECT

- 58년 역사에 빛나는 전통의 교육요람
- 공주-예산-천안의 특화된 삼각 특성화 캠퍼스
- 5년연속 교원임용고시 합격률 전국 1위
- 저렴한 등록금, 전국 최상위 장학금 수혜율
- 높은 취업률, 맞춤형 교육과 담임교수제
- NURI사업 전국 최상위권 선정